

도민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 힘 모은다

道·시·군, 경제·투자유치한마당서 실천협약 민선 8기 일자리 40만개 목표 추진 전략 발표

전남도는 13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2 전남도 일자리·경제·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열어 올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김태균 도의회 부의장, 정기명 여주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장흥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일자리 우수 기업 대표, 일자리·경제·투자유치 유공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민선 8기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전남형 일자리 혁신 ▲중앙-광역-기초 협력을 통한 초광역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도민 행복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이 지방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전남도·시·군 간 협력 지원과 시·군별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실천협약을 했다.

이는 2022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남도가 일자리정책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

이다. 행사에서는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일자리 우수 기업에 인증서 수여,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등 분야별 우수 시·군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식이 진행됐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레인아이, (유)인터테크, 대상푸드플리스㈜, (주)해도식품, (주)아라움, 에스씨에스㈜, (주)티이에프, 두드림푸드㈜, (주)테라에너지, 엑셀로㈜, (주)유니테크, (주)원창, (주)코월드팜, 옥과맛있는김치영농조합법인, (주)송림, 에스디피비이㈜, 대상중공업㈜, 농업회사법인(주)담아, 선보하이텍㈜, (주)에스씨 등 20개 사다.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은 여수시가 영예의 대상 받았다. 최우수상은 목포시와 무안군, 우수상은 강진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곡성군과 보성군이 수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 시·군은

해남군이 대상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담양군과 영광군, 우수상은 광양시와 무안군, 노력상은 곡성군과 진도군이 받았다.

투자 유치 우수 시·군은 광양시와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장흥군과 영광군, 장려상은 나주시와 무안군, 합평군이 받았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김태선 (주)무창 대표이사 등 30명이 민간인 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남겨진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더 나아가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의 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남해안해안관광벨트 조성,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 전남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속면효과 기능성 상추 '흑하랑' 주목

도농기원, 품종 등록 이어 수면건강제품 출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천연 소재로 속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으로 수면건강제품 산업화에 성공했다.

흑하랑 상추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8년간의 연구 끝에 2019년 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정신 건강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이 3.74mg/g으로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많다.

도농기술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변화에 발맞춰 '흑하랑' 고도화를 위해 '토종 개량 흑하랑 상추 품종 개발과 전문 특화단지 조성', '민관협력 흑하랑 상추의 천연성분 이용 가공 제품화'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 현장실증-시범사업-정책 사업을 통해 전문 재배단지를 육성해 왔으며 현재 2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 면적은 30ha, 생산량은 300t까지 증가했다.

또 도농기술원은 도내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흑하랑 상추 공동 생산자 연합회'에 고유 상표(흑하랑·꿀잠상추·흑하랑) 사용을 허락해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외부 기업체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있다.

흑하랑 상추는 기능성 프리미엄이 적용돼 일반 상추 대비 1.5-8.5배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 원료화에 따른 일시 수확으로 노동력을 25% 줄여줘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흑하랑 품종을 활용, 2017년 (주)휴롬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업체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해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올해 19개의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흑하랑 수면 기능성은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티백차와 양갱 제



흑하랑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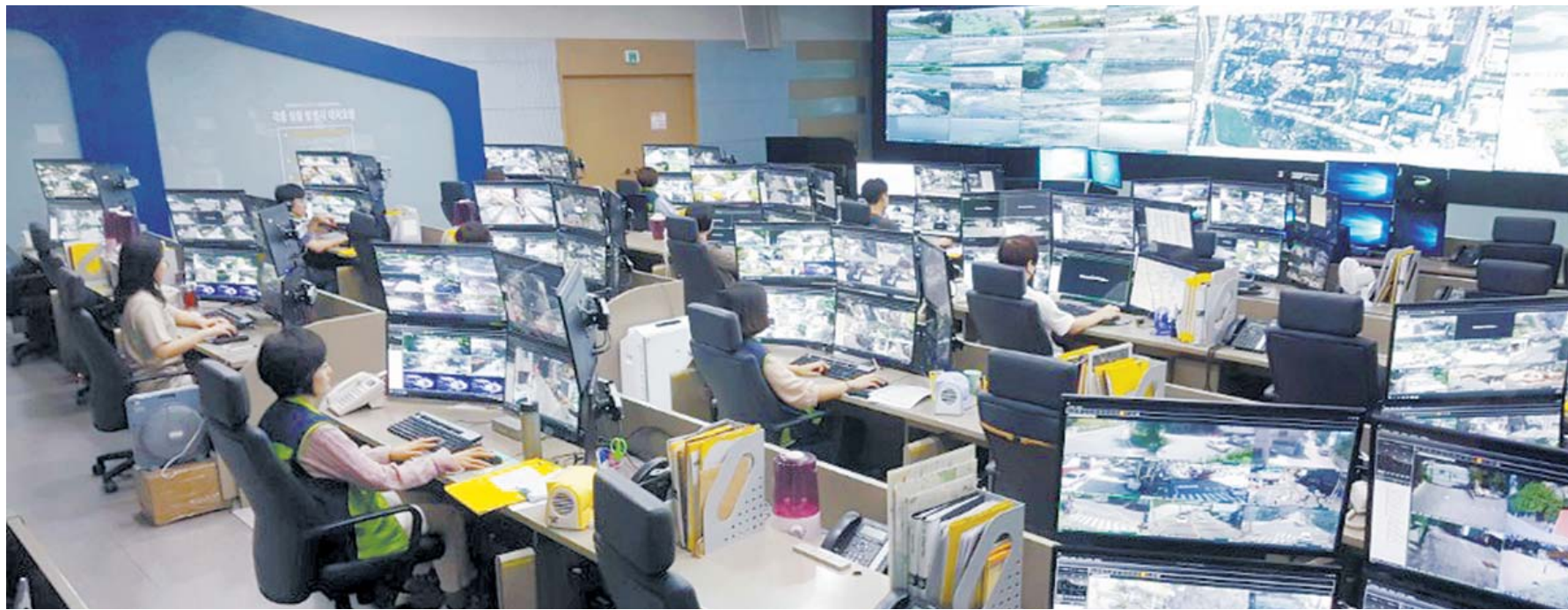
품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현지 테스트 중이고 해외 유통업체가 직접 해당 나라에 맞는 고유 제형의 상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도농기술원은 향후 수출이 늘고, 건강기능성 원료 전문업체 5곳에서 진행 중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인증 제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선보이면 시장 규모가 2030년 1천억원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농기술원은 앞으로 ▲전문생산단지 중심 대용량 가공시설 구축 ▲시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시범유통 ▲도내 의학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확대 ▲해외의 종자유출 방지를 위한 품종 고유 분자마커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새로운 건강기능성 키워드로 수면이 부각되는 가운데 수면제 부작용이 없는 천연 식물성 소재인 흑하랑 상추 가공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고도화 사업으로 원료 가공과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의학 산업화까지 확장함으로써 자체 개발 품종인 흑하랑 상추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농촌 재생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경찰·소방·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강력 범죄를 근절하는 등 '안심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광주시 제공)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 '시민 안전 지킴이' 자리매김

2013년 개소 후 범죄·사건·사고 예방 4천800여건 달해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5월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차량번호 인식용 등 총 9천 600여대의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89명의 관제원이 5개 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관제를 통

해 빈틈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6일 오전 10시께 마약 판매 수배 차량의 긴급 지령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원이 실시간 추적 관제를 유지하는 중 인근 모텔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가 현장 주변을 조사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11월25일 오후 2시30분께 강도가

집 내부로 침입해 상해를 입힌 뒤 현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통합관제센터는 현장 주변 CCTV 관제 중 강도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관제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이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소방·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고 강력 범죄를 근절하는 등 '안심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개소 이래 강력범 검거·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응급환자, 재난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 예방 활동 4천 830여건의 실적을 거뒀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통합관제센터는 강력범죄 예방과 근절은 물론 음주·노숙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 재난재해 대비 등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항상 빈틈없이 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 20일까지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광주시는 13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케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1억2천800만원을 투입해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 강화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이며 2곳을 모집해 종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위치하고 광주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

영리법인·단체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상담실과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 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케어) 사업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1억5천8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모집 대상은 1곳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오는 20일까지 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장성군
Jangseong

한국 전통문화유산

세계 속 빛나는 [장성 필암서원]